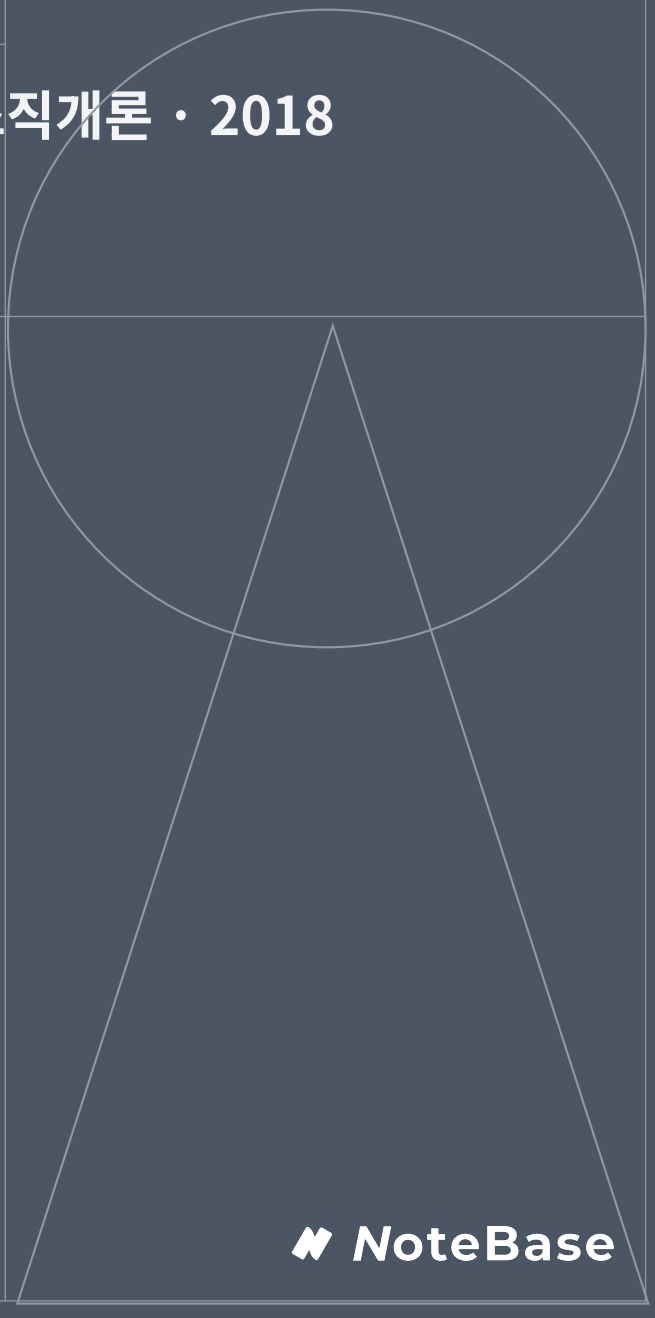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지방직/9급 · 자료조직개론 · 2018



NoteBase
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지방직/9급 · 자료조직개론 · 2018

공무원/지방직/9급 · 자료조직개론 · 2018

문 1. KDC 제6판 종교(200)의 하위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경학(經學)

② 신앙생활

③ 교회론

④ 도교(道敎)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경학(經學)은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, KDC 제6판에서는 **철학(100)의 경학(140)**에 배정된다. 따라서 종교(200)의 하위 주제가 아니다.

선지별 해설

아래의 O/X는 각 주제가 KDC 제6판의 종교(200)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.

① X: 경학은 유교 경전의 내용과 뜻을 연구하는 학문이다. KDC 제6판에서는 종교(200)가 아니라 **철학(100) 아래의 경학(140)**에 배정된다.

② O: 신앙생활은 종교적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, 각 종교의 하위 주제로 다룬다. 예를 들어 기독교(230) 아래의 **234에는 종교신앙·신앙록·신앙생활**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종교(200)에 포함된다.

③ O: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과 조직 등을 다루는 주제이다. KDC 제6판에서는 **기독교(230) 아래의 교회론(236)**에 배정되므로 종교(200)의 하위 주제이다.

④ O: 도교는 종교(200) 아래에 **도교(240)**로 배정된다. 그 아래에서 도교의 교의, 경전, 신앙생활, 의례 등을 세분하므로 종교의 하위 주제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2. 리재철 『한글순도서기호법』(제5표)를 적용할 때, 『구조동역학』(김춘호 저)의 저자기호로 옳은 것은?

자음기호		모음기호			
		초성이 'ㅊ'이 아닌 글자		초성이 'ㅊ'인 글자	
ㄱ ㄲ	1	ㅏ	2	ㅏ(ㅐ ㅑ ㅒ)	2
ㄴ	19	ㅐ(ㅑ ㅒ)	3	ㅓ(ㅔ ㅕ ㅖ)	3
ㄷ ㄸ	2	ㅓ(ㅔ ㅕ ㅖ)	4	ㅗ(ㅘ ㅙ ㅚ ㅛ)	4
ㄹ	29	ㅗ(ㅘ ㅙ ㅚ ㅛ)	5	ㅜ(ㅝ ㅞ ㅟ ㅠ ㅡ ㅢ)	5
ㅁ	3	ㅜ(ㅝ ㅞ ㅟ ㅠ)	6	ㅣ	6
ㅂ ㅃ	4	ㅡ(ㅢ)	7		
ㅅ ㅆ	5	ㅣ	8		
ㅇ	6				
ㅈ ㅉ	7				
ㅊ	8				
ㅋ	87				
ㅌ	88				
ㅍ	89				
ㅎ	9				

① 기85

② 기86

③ 김85

④ 김86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성 '김'은 **받침까지 그대로** 쓰고, '춘'의 초성 ㅊ은 8로 표시한다. 모음 ㅜ는 **초성이 ㅊ인 글자**의 열을 적용하여 5로 표시하므로 저자기호는 '김85'가 된다.

NoteBase

구성 요소별 해설

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에서는 저자명의 첫 음절을 그대로 쓰고, 둘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을 표의 숫자로 바꾸어 차례로 붙인다. 김춘호는 첫 음절 '김'과 둘째 음절 '춘'을 이용한다.

첫 음절 '김': 성을 나타내는 음절은 **받침을 포함하여 그대로** 적는다. 따라서 '김'을 '기'로 바꾸지 않는다.

초성기호 8: 둘째 음절 '춘'의 초성은 ㅊ이다. 표 왼쪽의 자음기호에서 **ㅊ에 대응하는 8**을 찾는다. '춘'의 받침 ㄴ은 이 초성·중성 기호화에 사용하지 않는다.

모음기호 5: '춘'의 중성은 ㅜ이고 초성이 ㅊ이므로, 표 오른쪽의 **'초성이 ㅊ인 글자' 열**을 적용한다. 이 열에서 ㅜ의 기호는 5이다. 6은 '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' 열에서 ㅜ에 대응하는 기호이므로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'김' 뒤에 초성기호 8과 모음기호 5를 붙이면 '김85'가 되며, 이는 ③의 저자기호와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3. KDC 제6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이를 적용한 『윤리학 교육과정 비교분석』의 분류기호는?

190 윤리학(倫理學), 도덕철학(道德哲學) Ethics, moral philosophy
374 교육과정 Curriculum
교육과정 개발, 교육과정 평가, 각과교육, 이론, 경험 중심과정론 및 교과서, 교과서 문제 등을 포함한다.
001-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. 예: 수학교육과정 374.41
별법: 도서관에 따라 각과교육 다음에 0을 부가한 후 373.1- .7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. 예: 수학교육평가 374.4107
각급 학교의 각과 교육과정은 해당학교 아래에 분류한다.
예: 초등학교 사회생활과교육 375.43
375 유아 및 초등 교육 Elementary education

① 190.374

② 374.19

③ 374.1903

④ 375.1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이 책은 윤리학 자체가 아니라 **윤리학의 교육과정**을 다루므로 교육과정 기호 374를 기준으로 분류한다. 여기에 윤리학의 주제구분을 적용하면 **374.19**가 된다.

구성 요소별 해설

기본기호 374: 제시된 본표에서 교육과정은 374이며, 각과교육도 여기에 포함한다. 『윤리학 교육과정 비교분석』은 윤리학이라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다루므로 **교육과정인 374를 기본기호**로 삼는다. 윤리학 일반을 뜻하는 190을 앞에 두지 않으며, 특정 학교급의 교육과정이라는 조건도 없으므로 375 아래에 분류하지 않는다.

주제구분 19: 374에는 '001-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'는 지시가 있다. 이는 교육과정의 교과 주제를 본표의 해당 주제 기호에 따라 세분하라는 뜻이다. 윤리학은 190이므로 이를 374 아래에 전개하면 **소수점 이하에 19를 붙인다**. 분류기호 끝의 불필요한 0은 남기지 않는다.

합성기호 374.19: 교육과정 374에 윤리학의 주제구분 19를 이어 붙이면 374.19가 된다. 제목에는 별도의 세분을 더 적용할 조건이 없으므로 03 등을 덧붙이지 않는다. 이 합성 결과는 ②의 분류기호와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4. DDC 제23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밑줄 친 ㉠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KDC 제6판의 분류기호는?

600	Technology (Applied sciences)
610 ㉠	Medicine and health
620	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

① 410
② 420
③ 510
④ 520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밑줄 친 610은 'Medicine and health', 즉 **의학 및 건강**을 뜻한다. KDC 제6판에서 이에 대응하는 의학의 분류기호는 **510**이다.

공통 해설

자료에서 ㉠은 DDC 제23판의 610이며, 오른쪽 표목은 'Medicine and health'이다. 따라서 찾아야 할 주제는 의학 및 건강이다. KDC 제6판에서는 기술과학(500) 아래에 **의학을 510**으로 배정하므로, 이 주제에 대응하는 분류기호는 510이다.

분류기호는 각 분류법 안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기호이므로, 서로 다른 분류법을 대응시킬 때는 **숫자의 일치가 아니라 표목의 의미**를 기준으로 삼는다. 이 문항에서는 DDC의 610이 나타내는 주제를 KDC의 510에 연결한다.

NoteBase

문 5. 다음 분류법(초판)을 발간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ㄱ. Ranganathan의 콜론분류법(CC)
ㄴ. Harris의 분류법
ㄷ. Dewey의 십진분류법(DDC)
ㄹ. Cutter의 전개분류법(EC)

① ㄴ → ㄷ → ㄱ → ㄹ
② ㄴ → ㄷ → ㄹ → ㄱ
③ ㄴ → ㄹ → ㄷ → ㄱ
④ ㄹ → ㄴ → ㄷ → ㄱ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커터의 전개분류법 초판은 **1891년**, 랑가나탄의 콜론분류법 초판은 **1933년**에 발간되었다. 따라서 전개분류법이 콜론분류법보다 앞선다.

올바른 순서

ㄴ → ㄷ → ㄹ → ㄱ

ㄴ. Harris의 분류법: **1870년**에 발표되었으며, 제시된 네 분류법 중 가장 이르다.

ㄷ. Dewey의 십진분류법(DDC): 초판은 **1876년**에 발간되었다. 해리스의 분류법보다 뒤이고, 커터의 전개분류법보다 앞선다.

ㄹ. Cutter의 전개분류법(EC): 초판은 **1891년**에 발간되었다. 십진분류법 이후인 19세기 말에 나왔으므로, 20세기에 발간된 콜론분류법보다 앞에 놓인다.

ㄱ. Ranganathan의 콜론분류법(CC): 초판은 **1933년**에 발간되었다. 나머지 세 분류법이 모두 19세기에 나온 데 비해 콜론분류법은 20세기에 나왔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놓인다.

NoteBase

문 6.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이를 적용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340 정치학(政治學) Political sciences
.9 정치사 및 정치사정
980 지리(地理) Geography
특수지리학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. 예: 경제지리학 320.98; 정치지리학 340.98
.2 명승안내, 여행
특정지역의 명승안내, 여행은 해당지역에 분류한다.
예: 아시아기행 981.02
981 아시아지리 Geography of Asia
지역구분표 -1에 따라 세분한다. 예: 한국지리 981.1; 중국기행 981.202
982 유럽지리 Geography of Europe
지역구분표 -2에 따라 세분한다. 예: 영국지리 982.4; 독일여행기 982.502
984 북아메리카지리 Geography of North America
지역구분표 -4에 따라 세분한다. 예: 미국지리 984.2
989 지도 및 지도책 Maps and atlas
지구의 및 지리모형, 세계지도, 동반구 및 서반구 지도 등을 포함한다.
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. 예: 아시아지도 989.1
별법: 도서관에 따라 지도는 989 대신에 M을 분류기호 앞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. 예: 아시아지도 M981

지역구분표
-11 대한민국(大韓民國) Korea
-13 일본(日本) Japan
-41 캐나다 Canada

① 대한민국지도 M981.1
② 일본지도 989.13
③ 현대정치지리학 340.98
④ 캐나다기행 980.241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특정 지역의 기행은 980.2 아래에 지역기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**해당 지역 아래에 분류**한다. 캐나다기행은 캐나다지리 984.1에 여행을 나타내는 02를 붙인 **984.102**로 분류한다.

NoteBase

선지별 해설

① O: 제시된 별법에 따르면 지도는 989 대신 **해당 지역의 지리 분류기호 앞에 M**을 붙여 나타낼 수 있다. 대한민국의 지역구분기호는 -11이고, 한국지리는 981.1이므로 대한민국지도는 M981.1로 분류할 수 있다.

② O: 지도 및 지도책은 989에 분류하고 **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**한다. 일본의 지역구분기호 -13을 989에 붙이면 989.13이 되므로 일본지도의 분류기호로 적절하다.

③ O: 특수지리학은 지리 일반인 980이 아니라 **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**한다. 제시문이 정치지리학의 분류기호를 340.98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대정치지리학도 340.98에 분류한다.

④ X: 980.2의 주기에 따라 특정 지역의 명승안내와 여행은 **해당 지역 아래에 분류**해야 한다. 캐나다는 지역구분기호 -41에 해당하며, 북아메리카지리 984를 세분하면 캐나다지리는 984.1이 된다. 제시문의 중국기행 981.202와 독일여행기 982.502처럼 지역의 지리 분류기호에 여행을 나타내는 02를 붙이므로, 캐나다기행은 **984.102**로 분류한다. 980.2에 캐나다의 지역기호 41을 바로 붙인 980.241은 이 주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.

NoteBase

문 7.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이를 적용한 『Public libraries in Japan』의 분류기호는?

027 General libraries, archives, information centers
.4 Public libraries
[.409 3–.409 9] Specific continents, countries, localities
Do not use; class in 027.43–027.49
.42 Library outreach program
.43–.49 Specific continents, countries, localities
Add to base number 027.4 notation 3–9 from Table 2,
e.g. public libraries in France 027.444

Table 2
–51 China and adjacent areas
–519 Korea
–52 Japan

① 027.40952
② 027.452
③ 027.4952
④ 027.52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제시된 합성지시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본기호 **027.4에 일본의 지역구분기호 52를 직접 덧붙여** 027.452를 만든다. 지역구분을 위해 09를 사이에 넣지 않는다.

NoteBase

구성 요소별 해설

기본기호: 『Public libraries in Japan』은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자료이다. 제시된 본표에서 027은 일반도서관·기록보존소·정보센터를 포괄하며, 그 아래 'Public libraries'에 해당하는 기호가 **027.4**이다.

지역구분기호: 보조표 2의 'Japan'에 제시된 기호는 -52이다. 합성할 때는 **숫자 부분인 52**를 사용하며, 앞의 붙임표는 분류기호에 포함하지 않는다.

합성지시와 결과: 본표의 027.43–027.49에는 기본기호 027.4에 보조표 2의 지역구분기호를 덧붙이라고 지시되어 있다. 또한 [.4093–.4099]에는 'Do not use'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, **027.40952처럼 09를 넣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**. 027.4의 끝에 52를 이어 붙이면 027.452가 되며, 이는 ②의 기호와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8. KDC 제6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이를 적용하여 분류할 경우, 별법이 적용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016 주제별 서지 및 목록 Subject bibliographies and catalogs
별법: 도서관에 따라 주제별 서지 및 목록을 각 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 있다. 예: 법률서지 및 목록 360.26
022 도서관 건축 및 설비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s
별법: 도서관에 따라 549.31에 분류할 수 있다.
430 화학(化學) Chemistry
430.01-.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.
739 기타 아시아 제어(諸語) Other Asian languages
(.86) *필리핀어, 타갈로그어 Philippine, Tagalog languages
840 영미문학(英美文學)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s
별법: 도서관에 따라 미국문학은 849에 분류할 수 있다.
843 소설 Fiction
(849) 미국문학(美國文學)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
영국문학과 미국문학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는 미국 문학을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.
(.3) 소설
* 해당언어를 동남아시아어와 함께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 별법으로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96 아래의 해당언어에 분류한다.
ㄱ. 화학서지 및 목록 430.026
ㄴ. 필리핀어 739.86
ㄷ. 미국소설 843
ㄹ. 도서관 건축 022

① ㄱ, ㄴ

② ㄱ, ㄴ, ㄷ

③ ㄴ, ㄷ, ㄹ

④ ㄱ, ㄴ, ㄷ, ㄹ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화학서지를 016 대신 **주제인 화학 아래**에 분류하고, 필리핀어를 **동남아시아어와 함께** 739.86에 분류하는 것은 모두 본표에 제시된 별법을 선택한 것이다.

NoteBase

보기별 해설

별법은 도서관의 선택에 따라 기본 분류와 다른 위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방법이다. 각 보기의 분류번호가 기본 분류인지, 별법을 선택한 결과인지를 구별한다.

ㄱ. 별법 적용: 주제별 서지 및 목록의 기본 분류는 016이지만, 각 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 있다는 별법이 제시되어 있다. 화학서지 및 목록을 430.026에 두는 것은 **서지의 대상 주제인 화학 아래**에 분류한 것이므로 이 별법에 해당한다.

ㄴ. 별법 적용: 필리핀어·타갈로그어의 별표 주기는 해당 언어를 **동남아시아어와 함께 분류하려는 경우** 739 아래의 .86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. 따라서 필리핀어를 739.86에 분류한 것은 별법을 적용한 것이다. 이 별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796 아래의 해당 언어에 분류한다.

ㄷ. 별법 미적용: 영국문학과 미국문학을 구분하지 않는 기본 분류에서는 영미문학의 소설을 843에 분류한다. 미국소설을 843에 둔 것은 이 기본 분류를 따른 것이다. 미국문학을 별도로 구분하는 별법을 선택하면 849 아래의 .3을 적용하여 **849.3**에 분류한다.

ㄹ. 별법 미적용: 도서관 건축 및 설비의 기본 분류는 022이다. 제시된 별법은 도서관에 따라 **549.31**에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, 도서관 건축을 022에 둔 것은 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.

별법이 적용된 것은 ㄱ과 ㄴ이며, ①의 조합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9. KDC 제6판의 본표와 표준구분표를 적용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종교역사 209

② 기술과학학회 506

③ 생명과학 연구법 470.7

④ 생활과학잡지 590.4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생활과학잡지는 **연속간행물의 표준구분 -05**를 적용하여 590.5로 분류한다. 590.4는 잡지가 아니라 강연집·수필집·연설문집에 해당한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종교의 역사를 다룬 자료는 종교사에 해당한다. 본표에서 종교는 200이고 **종교사는 209**로 전개되어 있으므로, 종교역사를 209로 분류한 것은 적절하다. 이는 표준구분 -09의 역사 및 지역구분과 연결된다.

② O: 기술과학은 본표에서 500이다. 학회는 표준구분 -06의 **각종 단체**에 해당하며, 본표에서도 506이 학회·단체·기관·회의로 전개되어 있다. 따라서 기술과학학회는 506으로 분류한다.

③ O: 생명과학의 본표 기호는 470이고, **연구법에는 표준구분 -07**을 적용한다. 이 경우 기호를 결합하면 470.7이 되므로 생명과학 연구법의 분류기호가 적절하다.

④ X: 생활과학의 본표 기호는 590이며, 잡지는 연속간행물에 해당하므로 **-05를 적용한 590.5**로 분류해야 한다. 590.4는 표준구분 -04에 해당하는 강연집·수필집·연설문집의 기호이므로, 생활과학잡지를 590.4로 분류한 것은 형식에 맞지 않는다.

NoteBase

문 10. KDC 제6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이를 적용한 『소설가 박경리 전기』의 분류기호는?

810 한국문학(韓國文學) Korean literature
813 소설 Fiction
.6 20세기 1910-1999
990 전기(傳記) Biography
별법: 도서관에 따라 개인전기는 99, B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다.
(991) *아시아전기 Biography of Asia
지역구분표 -1에 따라 세분한다. 예: 한국인총전 991.1
(998) 주제별전기 Biography by subjects
이 주제별 전기는 990 아래에 전기서를 일괄집중시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 별법으로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.
주제별 전기는 예컨대 철학가, 종교가, 예술가, 문학가 등과 같이 그 인물과 주제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.
예: 수학자전기 410.99
주제와 관련을 갖는 각전 및 총전을 포함한다.
100-990과 같이 주제구분(강목 이상)한다. 예: 수학자전기 998.41
* 특수전기, 지역전기를 함께 모으고자 할 경우에 별법으로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.

① 998.81
② 991.81
③ 991.8
④ 813.6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『소설가 박경리 전기』는 소설 작품이 아니라 **문학가의 전기**이다. 주제별 전기를 모으는 별법 998에 한국문학 810의 강목 수준 주제구분 81을 붙이면 998.81이 된다.

NoteBase

구성 요소별 해설

전기 분류항목: 제시문은 문학가처럼 인물과 주제가 밀접한 전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하되, 전기를 990 아래에 모으려면 **별법인 주제별 전기 998**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. 이 문항의 선택지에서는 이 별법을 적용한다. 991은 아시아전기라는 지역별 분류이므로, 문학가라는 주제에 따른 분류항목과 구별한다.

주제구분: 998의 지시는 '100-990과 같이 주제구분(강목 이상)'하는 것이다. 제시된 수학자전기 998.41이 수학 410을 반영하듯, 한국문학 810에서는 81을 취한다. **강목 이상으로만 구분**하므로 소설 813이나 시대구분 .6까지 가져오지 않는다. 또한 분류 대상은 박경리가 쓴 소설 작품이 아니라 박경리에 관한 전기이므로 813.6을 그대로 부여하지 않는다.

기호 구성: 주제별 전기의 기본기호 998 뒤에 한국문학의 주제구분 81을 결합하여 998.81로 만든다. 이는 ①의 분류기호와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11. <보기 1>을 대상으로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(통합서지용, 2014 개정판)을 적용하여 <보기 2>의 레코드를 작성하였다. <보기 2>의 필드 기술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단,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)

<보기 1>
◯ 표제: 『정의란 무엇인가』
◯ 책임표시: 마이클 샌델 저, 이창신 옮김
◯ 총서사항: 사상총서 ⑨
◯ 원표제: 『Justice』
◯ 원저자 Michael Sandel은 1953년생
◯ 원작의 레코드제어번호: 0000245544

<보기 2>
ㄱ. 041 ▼akor▼heng
ㄴ. 245 ▼a정의란 무엇인가 / ▼c마이클 샌델 저; ▼d이창신 옮김
ㄷ. 440 ▼a사상총서 ; ▼v9
ㄹ. 700 ▼aMichael Sandel, ▼d1953-
ㅁ. 765 ▼tJustice ▼w0000245544

① ㄱ, ㄴ
② ㄴ, ㄷ, ㄹ
③ ㄴ, ㄹ, ㅁ
④ ㄴ, ㄷ, ㄹ, ㅁ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245 필드의 책임표시는 첫 번째에 **▼d**, 두 번째 이하에 **▼e**를 쓴다. 2014 개정판에서는 **440 대신 490**으로 총서사항을 기술하며, 서양인명 표목은 **성, 이름** 순서로 적는다.

NoteBase

보기별 해설

ㄱ. O: 041은 언어부호를 기록하는 필드로, ▼a에는 본문언어를, ▼h에는 원저작의 언어를 적는다.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옮긴 자료이므로 **본문언어 kor와 원저작 언어 eng**를 각각 ▼a와 ▼h에 기술한 것은 적절하다.

ㄴ. X: KORMARC 245 필드에서 **첫 번째 책임표시는 ▼d,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는 ▼e**에 기술한다. 저자인 마이클 샌델과 번역자인 이창신은 역할이 다르므로 쌍반점(;)으로 구분한다. 따라서 '245 ▼a정의란 무엇인가 / ▼d마이클 샌델 저 ; ▼e이창신 옮김'으로 고친다.

ㄷ. X: 440 필드는 총서사항과 총서부출표목을 함께 나타내던 필드이지만, 문제에서 지정한 **2014 개정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**. 총서사항은 '490 ▼a사상총서 ; ▼v9'로 기술한다. 총서표제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부출할 경우에는 490과 별도로 830 필드에 총서부출표목을 기술한다.

ㄹ. X: 700은 개인명 부출표목을 기록하는 필드이다. 이 서양인명은 성인 Sandel을 먼저 적고 쉼표 뒤에 이름인 Michael을 적어야 하므로, **Michael Sandel을 Sandel, Michael로 도치**한다. ▼d는 생몰년을 나타내며 제시된 생년 1953년은 그대로 사용한다. 따라서 '700 ▼aSandel, Michael, ▼d1953-'로 고친다.

ㅁ. O: 765는 번역자료의 레코드에서 **원저자료에 관한 사항**을 기술하는 원저저록 필드이다. ▼t에는 원저자료의 표제를, ▼w에는 레코드 제어번호를 적는다. 따라서 원표제 Justice와 원작의 레코드제어번호 0000245544를 각각 ▼t와 ▼w에 기술한 것은 적절하다.

필드 기술이 옳지 않은 보기는 ㄴ, ㄷ, ㄹ이며,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12.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(통합서지용, 2014 개정판)을 적용하여 연속간행물을 기술한 레코드의 일부이다. ㉠, ㉡에 들어갈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? (단,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)

310 ▼a계간
(㉠) ▼a제11권 제1호(2010년 3월)-
580 ▼a교통계획 및 정책연구에서 교통계획과 교통정책으로
분리
(㉡) ▼t교통계획 및 정책연구▼g제1권 제1호(2000년 3월)-
제10권 제4호(2009년 12월)

① ㉠: 321, ㉡: 780
② ㉠: 321, ㉡: 785
③ ㉠: 362, ㉡: 780
④ ㉠: 362, ㉡: 785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'제11권 제1호(2010년 3월)-'는 간행빈도가 아니라 **권호와 연월차**이므로 362에 기술한다. 분리되기 전의 '교통계획 및 정책연구'는 현재 자료의 **선행자료**이므로 780에 기술한다.

빈칸별 해설

㉠ 362: 362는 연속간행물의 '권·연차, 연월차 사항'을 기술하는 필드이다. '제11권 제1호'는 권호차이고 '(2010년 3월)'은 그 권호의 연월차이다. 뒤의 붙임표는 종간 권호를 제시하지 않고 **계속 간행 중임**을 나타낸다. 321은 월간·계간처럼 이전에 얼마나 자주 발행했는지를 나타내는 '이전 간행빈도' 필드이므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.

㉡ 780: 780은 현재 기술하는 자료에 직접 선행하는 자료를 연결하는 '선행저록' 필드이다. 580의 설명에 따르면 '교통계획 및 정책연구'에서 '교통계획'과 '교통정책'이 분리되었다. 따라서 2000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발행된 '교통계획 및 정책연구'는 분리 후 자료의 **선행자료**이다. ㉡의 ▼t에는 이 선행자료의 표제가, ▼g에는 관련 권호와 연월차가 기술되어 있다. 785는 현재 자료 다음에 이어지는 '후속저록'을 기술하므로 선후 관계의 방향이 다르다.

㉠에 362, ㉡에 780을 넣는 조합은 ③이다.

NoteBase

문 13. 목록의 표목과 접근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특정 문헌이나 합집에 수록된 개별 저작을 대상으로 한 분출저록의 표목을 분출표목이라 한다.

② 접근점을 저자(단체), 표제, 주제명, 분류기호로 제한하고, 이 가운데 주제명과 분류기호를 기본표목으로 사용한다.

③ AACR2R에서는 저자를 알 수 없거나 4인 이상인 경우, 표제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한다.

④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는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을 크게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구분하고 있다.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②의 '주제명과 분류기호를 기본표목으로 사용한다'는 설명이 잘못되었다.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따라 **저자명·단체명 또는 표제** 등에서 선정하며, 주제명과 분류기호는 자료의 내용을 찾기 위한 **주제 접근점**이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분출저록은 문헌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된 **개별 저작을 따로 검색할 수 있도록** 작성한 저록이다. 예를 들어 여러 작품을 모은 합집에서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저록을 만들 때, 그 저록의 표목을 분출표목이라 한다.

② X: 기본표목은 기본저록의 중심이 되는 표목으로, 목록규칙에 따라 **저자명·단체명 또는 표제** 등에서 선정한다. 주제명과 분류기호는 자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주제 접근점이므로 이를 기본표목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. 또한 접근점은 선지의 네 종류로만 제한되지 않으며, 식별기호나 키워드 등도 활용할 수 있다.

③ O: AACR2R에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저작을 표제 아래 기입한다. 또한 4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**주된 책임 저자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**에도 표제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한다. 이때의 4인 이상 규칙을 주된 책임 저자가 명시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.

④ O: 국제목록원칙규범은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검색하는 접근점을 제어형과 비제어형으로 구분한다. 제어형 접근점은 **전거레코드를 통해 형식을 통제**하여 같은 대상의 자료를 일관되게 모을 수 있도록 한다. 비제어형 접근점은 전거레코드로 통제하지 않은 이름, 자료에 나타난 표제, 키워드 등을 검색에 활용하는 접근점이다.

NoteBase

문 14.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 제시한 '목록의 목적과 기능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서지자원이나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일

② 소장자료 중 서지자원을 탐색하는 일

③ 목록의 안팎을 항해하는 일

④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접근점을 선정하는 일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④의 '접근점 선정'은 **목록 작성에 관한 사항**이다. 목록의 목적과 기능에서 말하는 '선정'은 이용자가 **자신의 요구에 맞는 서지자원을 고르는 일**을 뜻한다.

선지별 해설

목록의 목적과 기능은 이용자가 서지자원을 탐색·식별·선정·획득하고, 목록 안팎을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.

① O: 식별은 기술된 서지자원이나 에이전트가 **찾으려는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**하거나,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구별하는 기능이다. 에이전트는 저작·표현형·구현형·개별자료와 책임 관계를 맺는 개인·가족·단체를 말한다.

② O: 탐색은 개체의 **속성이나 관계를 검색 조건으로 사용**하여 소장자료에서 원하는 서지자원을 찾는 기능이다. 특정 자료 하나뿐 아니라 같은 저작을 실현한 자료들이나 특정 저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찾는 것도 포함한다.

③ O: 항해는 개체 간 관계와 데이터의 논리적 배열을 따라 관련 정보를 찾아가는 기능이다. 목록 내부에서 관련 자료로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**다른 목록이나 도서관 밖의 정보로 이동**하는 것도 포함한다.

④ X: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을 선정하는 것은 서지데이터를 검색·식별할 수 있도록 이름·표제 등의 검색 단서를 정하는 목록 작성 사항이다. 목록의 목적과 기능에 속하는 '선정'은 접근점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**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지자원을 고르는 일**이다. 예를 들어 내용이나 매체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고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.

NoteBase

문 15. KCR 제4판에서 단행본에 적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판표시
ㄴ. 자료특성사항
ㄷ. 특정자료종별
ㄹ. 등록표제

① ㄱ
② ㄴ, ㄷ
③ ㄷ, ㄹ
④ ㄴ, ㄷ, ㄹ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자료특성사항과 특정자료종별은 **단행본에 적용하지 않는다**. 등록표제도 일반적인 책 제목이 아니라 **ISSN과 관련하여 연속간행물에 부여되는 고유한 표제**이다.

보기별 해설

ㄱ. 판표시: 단행본에 적용한다. '제2판', '개정판'처럼 해당 자료가 어떤 판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며, **판사항**에 기술한다. 같은 저작이라도 판에 따라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을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.

ㄴ. 자료특성사항: 단행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(KCR 제4판 2.3). 지도자료의 축척·좌표, 악보의 종류, 연속간행물의 권호차·연월차처럼 **특정 자료유형에 고유한 사항**을 기술하는 영역이다. 단행본의 쪽수나 크기를 적는 형태사항과 구별한다.

ㄷ. 특정자료종별: 단행본에는 표시하지 않는다(KCR 제4판 2.5.1.2). 지도자료의 '지구의', 녹음자료의 '음반'처럼 **자료의 구체적인 물리적 종류**를 나타내며 형태사항에서 사용한다. 단행본에서 특정자료종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태사항 전체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며, 쪽수나 권책수 등은 기술한다.

ㄹ. 등록표제: 단행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ISSN 네트워크의 국가센터가 **연속간행물을 고유하게 식별하도록 부여하는 표제**로, ISSN과 관련된다. 자료에 적힌 제목을 기술하는 본표제와는 다르며, KCR 제4판에서는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의 요소이다.

단행본에 적용하지 않는 항목은 ㄴ·ㄷ·ㄹ이며,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16. IFLA의 ISBD(통합판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수량, 크기, 딸림자료표시는 자료기술영역에 기술한다.

② 축적표시와 연속간행물의 권호는 자료 또는 자원유형특성 영역에 기술한다.

③ 본표제, 표제관련정보, 부차적 판표시의 책임표시는 표제와 책임표시영역에 기술한다.

④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영역은 첫 번째로 기술되는 영역이며, 통합판에 새로이 신설되었다.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본표제와 표제관련정보는 표제와 책임표시영역에 기술하지만, **부차적 판표시의 책임표시**는 **판사항영역**에 기술한다. 책임표시라도 특정 판과 관련된 정보이면 판사항과 함께 기록한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자료기술영역은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기록하는 제5영역이다. 페이지 수나 권수 등의 수량, 자료의 크기, 함께 제공되는 딸림자료표시가 여기에 속한다. 이들은 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이 아니라 **자료의 물리적 구성과 형태**를 설명한다.

② O: 자료 또는 자원유형특성 영역은 지도자료나 연속간행물 등 특정 자료유형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3영역이다. 선지의 '축적표시'가 뜻하는 지도의 축소 비율 표시는 지도자료의 수학적 데이터에 해당하고, 연속간행물의 권호는 발행 순서를 나타내는 권호차에 해당하므로 모두 **제3영역**에 기술한다.

③ X: 본표제는 자료의 주된 제목이고, 표제관련정보는 이를 보충하는 정보이므로 제1영역인 표제와 책임표시영역에 기술한다. 그러나 부차적 판표시의 책임표시는 해당 판의 추가적인 판표시와 관련된 책임 정보를 나타내므로 **제2영역인 판사항영역**에 기술한다. '책임표시'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제1영역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.

④ O: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영역은 **제0영역**으로, 제1영역인 표제와 책임표시영역보다 먼저 기술한다. 내용이 표현되는 형식과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유형을 나타내며, 2011년 ISBD 통합판에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되었다.

NoteBase

문 17. KCR 제4판의 비도서자료 기술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도서를 마이크로자료로 복제한 복제본의 발행사항을 기술할 때 원본의 발행사항을 기술하고, 복제본의 발행사항은 주기한다.

② 화상자료와 영상자료의 책임표시에는 화가, 디자이너, 감독, 연출자, 연기자, 배우 등이 포함된다.

③ 원격접근 전자자료의 형태사항에는 '온라인자원'으로 기술한다.

④ 녹음자료의 경우 녹음된 내용이 동일하나 원판이 다를 때는 별도의 판으로 취급한다.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녹음자료는 수록 내용이 같더라도 **원판이 다르면 별도의 판**으로 취급한다. 따라서 판을 구별할 때는 내용의 동일성뿐 아니라 원판의 차이도 확인한다.

선지별 해설

① X: 마이크로자료로 복제한 자료는 **복제본 자체를 기술대상**으로 한다. 따라서 발행사항에는 복제본의 발행지·발행처·발행년을 기술하고, 원본의 발행사항은 주기한다. 선지는 원본과 복제본의 발행사항을 기술하는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.

② X: 화상자료와 영상자료의 책임표시에는 화가, 디자이너, 감독, 연출자 등 해당 자료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포함한다. 그러나 **연기자나 배우는 책임표시의 범위에서 제외**하며, 필요한 출연자 정보는 주기사항에 기술한다. 감독·연출자와 배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.

③ X: KCR 제4판의 전자자료 기술규칙에서는 **원격접근 전자자료의 형태사항을 기술하지 않는다**. 원격접근 자료는 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므로, 직접접근 자료의 디스크 등과 같은 물리적 매체의 수량·크기를 기술하는 방식과 구별한다. '온라인자원'을 형태사항에 적는다는 설명은 이 규칙에 맞지 않는다.

④ O: 녹음자료는 **녹음된 내용이 동일해도 원판이 다르면** 별도의 판으로 취급한다. 판의 구별이 수록 내용의 변경 여부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, 내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

NoteBase

문 18. KORMARC 형식(통합서지용, 2014 개정판)의 서지레코드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리더 뒤에 나오는 것으로 어떤 필드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길이가 얼마인가를 지시해 주는 데이터가 기재된다.

② 각 표시기호에 대해서 한 개씩의 디렉토리 항목이 만들어지며 이 항목은 표시기호, 필드길이, 필드시작위치 등 3부분으로 편성된다.

③ 디렉토리 항목은 24자리를 한 단위로 하며, 한 레코드에서 디렉토리 항목의 수는 입력된 표시기호 수와 동일하다.

④ 디렉토리는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는데, 자신의 표시기호, 지시기호, 식별기호를 갖지 않으며 끝에는 필드종단기호를 갖는다.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디렉토리 항목은 표시기호 3자리, 필드길이 4자리, 필드시작위치 5자리로 이루어진 **12자리** 단위이다. 24자리로 고정된 것은 **리더**이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디렉토리는 **리더 바로 뒤**에 배치되며, 각 필드를 찾는 데 필요한 위치와 길이 정보를 담는다. 시스템은 디렉토리의 표시기호로 필드를 식별하고, 필드길이와 필드시작위치로 해당 필드의 범위를 파악한다.

② O: 디렉토리 항목은 **표시기호·필드길이·필드시작위치**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. 표시기호는 어느 필드인지를, 필드길이는 그 필드의 길이를, 필드시작위치는 데이터 기본번지로부터 그 필드가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낸다. 입력된 각 필드에 대응하는 항목이 만들어진다.

③ X: 디렉토리 항목 한 개의 길이는 24자리가 아니라 **12자리**이다. 표시기호 3자리 + 필드길이 4자리 + 필드시작위치 5자리 = 12자리로 구성된다. 24자리 고정길이는 리더의 특성이다. 다만 선지 뒷부분의 '디렉토리 항목의 수는 입력된 표시기호 수와 동일하다'는 설명은 맞다.

④ O: 디렉토리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며, **자신을 위한 표시기호·지시기호·식별기호는 없다**. 각 항목에 들어 있는 표시기호는 해당 가변길이필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디렉토리 자신의 표시기호와 구별한다. 디렉토리 끝에는 필드종단기호가 놓인다.

NoteBase

문 19. 한국문헌번호 ISBN 978-89-364-6133-1 7381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978은 국제ISBN관리기구에서 배정한 국별번호이다.

② 364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문헌번호센터가 배정한 발행자 번호이다.

③ 6133은 발행자가 발행하는 서명이나 판의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.

④ 73810은 부가기호로 앞부분의 738은 KDC 분류기호를 나타낸다.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6133은 개별 도서의 서명이나 판을 구별하는 **서명식별번호**이다. 발행자는 배정받은 발행자번호 아래에서 이 번호를 **순차적으로 부여**한다.

선지별 해설

① X: 978은 국별번호가 아니라 ISBN의 **접두부**이다. 이 번호에서 국제ISBN관리기구가 배정한 한국의 국별번호는 그다음에 오는 89이다.

② X: 364가 발행자번호라는 점은 맞지만, 배정 기관을 잘못 설명했다. 발행자번호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아니라 **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번호센터**에서 배정한다.

③ O: 6133은 **서명식별번호**로, 발행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개별 서명이나 판을 구별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 발행자번호 364가 발행자를 식별한다면, 서명식별번호 6133은 해당 발행자의 개별 출판물을 식별한다.

④ X: 73810이 부가기호라는 점은 맞지만, 내용분류기호의 위치를 잘못 설명했다. 다섯 자리는 독자대상기호 1자리, 발행형태기호 1자리, 내용분류기호 3자리로 나뉜다. 따라서 7은 독자대상기호, 3은 발행형태기호이며, KDC에 기초한 내용분류기호는 앞의 738이 아니라 **뒤의 810**이다.

NoteBase

문 20. 다음은 메타데이터 표준의 하나인 MODS를 이용하여 기술한 레코드의 일부분이다. ㉠, ㉡에 들어갈 요소로 옳은 것은?

```
<titleInfo>
  <title>건축학편람</title>
</titleInfo>
<name type="personal">
  <namePart>고만영</namePart>
  <role>
    <roleTerm type="text">편저</roleTerm>
  </role>
</name>
< ㉠ >텍스트</ ㉠ >
<genre>편람</genre>
< ㉡ >
  <place>
    <placeTerm type="text">서울</placeTerm>
  </place>
  <publisher>구미무역</publisher>
  <dateIssued>2012</dateIssued>
</ ㉡ >
```

① ㉠: mediaType, ㉡: source

② ㉠: typeOfResource, ㉡: originInfo

③ ㉠: format, ㉡: originInfo

④ ㉠: format, ㉡: source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'텍스트'는 자료 내용의 일반적 유형이므로 **typeOfResource**에 해당한다. 출판지·출판사·발행연도를 함께 묶는 요소는 **originInfo**이다.

NoteBase

빈칸별 해설

㉠ typeOfResource: 자료 내용의 일반적 유형을 기술하는 요소이다. 제시된 '텍스트'는 문자로 표현된 자료라는 유형을 나타내므로 이 요소에 들어간다. 바로 아래 genre의 '편람'은 **자료의 더 구체적인 장르**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.

㉡ originInfo: 자료의 출판·생성·발행에 관한 정보를 묶는 요소이다. 제시된 하위 요소에서 place의 '서울'은 출판지, publisher의 '구미무역'은 출판사, dateIssued의 '2012'는 발행연도를 나타낸다. 따라서 이들을 감싸는 상위 요소는 **출판 관련 정보를 묶는 originInfo**이다.

㉠ typeOfResource, ㉡ originInfo의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.

NoteBase